



일주문

무불선원 신년설법
법장 수덕사 주지는 10일 오후 2시 강남 무불선원 신년법회에서 법문한다. (02)541-0002

'지장경 강좌' 회향
지구 경찰청 경승실장스님은 12월 28일 경찰청 법당에서 <지장경강좌> 회향을 겸한 2000년 송년법회를 봉행했다.

태고종 강원종무원장
해성 춘천 정토사 주지는 지난 12월 13일 원주 용덕사에서 열린 임시지방총회에서 태고종 강원종무원장에 선출됐다.

좋은법 풍경소리 총재
지현 봉화 청량사 주지는 최근 '좋은 법 풍경소리'의 총재로 취임했다. 취임식은 2월 3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갖는다.

광주시암연 회장 취임
성호 관음암 주지 스님은 2일 광주 무각사에서 '제13대 광주 불교시암연회장'으로 취임했다.

부처님 마을 지도 법사
정도 조계사 기획국장 스님은 4일 1년동안 공적이었다던 나우리의 부처님 마을 지도법사 스님으로 위촉됐다.

감시원사 천수경 강설
김호성 동국대 교수는 11일 오후 5시 30분 감시원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천수경 강설 특별법회'에 초청돼 강의한다.

문화부장관 표창받아
조달현 청소년 교회연합회 사무총장은 12월 18일 청소년단체협의회 창립 35주년을 맞아 문화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석주 태고종 승정 입적

신석주 태고종 승정이 지난 12월 27일 대구 대흥사에서 입적했다. 세수 85세, 법랍 73세. 스님은 1915년 달성 생으로, 27년 유가사에서 박경기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동화사 강원 사진과, 해인사 강원 대교과를 수료했다.

석주 스님은 태고종 대구 경복교구 지방총회 의장 종무원장, 중앙총회 의원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석주스님의 영결·다비식은 12월 29일 대구 대흥사에서 종무원장으로 엄수됐다.

"춤 추다보면 사바번뇌 씻겨요"
신사년을 뛰는 우바이 ①
불교무용 '사천왕' 준비
손재현 동국대 교수
타종교인들의 활동폭이 큰 무용계에서 신심 하나로 불교 소재의 포교 무용을 무대에 올리자 사해 벽두부터 연습에 몰두하고 있는 우바이가 있다.
5월 30일~31일 봉축기법으로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 극장에서 불교무용 '사천왕'을 무대에 올리는 동국대 체육학과 무용담당 손재현 교수(41). 손 교수는 사해부터 이번엔 공연을 '사천왕' 연습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98년 무용단을 창단한 이후 절을 지키는 수호신인 사천왕을 소재로 포교 무용을 꼭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출연진 속에서 마음 모아 부처님의 정법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천왕을 통해 불자들이 재발심할 수 있도록 꾸밀 계획입니다."
손 교수가 불교 무용과 인연을 맺은 것은



대학시절부터다. 타종교인이었던 스승이 춤을 통해 제자들에게 선포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선한 충격을 받고 부터다. 그때까지만 해도 선포는 목사님의 설교나 인쇄 매체를 통해서만 이뤄지는 줄 알았는데 춤의 선포 효과가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절감했다.
그 후 무대 체질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손 교수는 동국대에서 후학들을 양성하며 자신이 공부한 서양 발레를 불교와 접목시키기 시

작했다. 동국대는 무용학과가 정규학과로 개설되지 않았지만 종합학교라는 장점 때문에 포교무용을 펼치기에 안성마춤이었다.

"발레만 할 때는 공연이 끝나고 무대를 내려올 때 웬지 모를 허탈감이 빠진 적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준비했던 과정들이 춤 한 동작에 실려 허공으로 날아 가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부처님의 정법을 몸짓으로 표현하는 포교 무용은 오히려 공연이 끝나면 환희심이 들어 힘든 줄 모릅니다."

'낮의 소리' '월광무' '말레니엄 페스티벌' 등 국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던 손 교수는 국내에서 머물지 않고 99년에 이스라엘에서 열린 '카미엘 국제 댄스 페스티벌'에 참가해 20만명의 세계인들에게도 한국 불교 무용을 선보일 정도로 포교 무용에 대한 열의와 신심이 뛰어나다.

'앞으로 불교 공부해 계속해 '팔만대장경' '원효대사' 등을 소재로한 불교춤을 선보이려고 합니다. 또 국내 최고의 무용수들은 물론 세계적인 무용수준을 자랑하고 있는 러시아 무용수들도 초청해 포교 무용의 수준을 한 층 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변변한 후원 단체 하나 없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신심 하나로 묵묵히 포교 무용에 힘쓰고 있는 손 교수의 아심한 새해 각오다.

김주일 기자(jkim@buddhachia.com)



상록 대강백 영결·다비식 엄수

구말 28일 오후 9시 30분 강화 전등사에서 입적한 전등사 회주인 공당(仰空堂) 상록(象嶽) 대강백의 영결 및 다비식이 30일 오전 11시 전등사 경내에서 1천여 사부대중이 운집한 가운데 엄수됐다.

상록 대강백은 1953년 마곡사에서 서운스님을 은사로 득도해 동화사 연주암 주지와 불국사 강원 강주를 역임했다. 87년 월산 스님에게 입적건당한 상록스님은 중앙승가대학교수 동국여경원 역경위원을 역임하며 대장경의 한글화와 후학양성에 공을 세웠다. 상록대강백은 28일 전등사 극락전에서 "사대금이주사대승(大聖主)하니 진인화중소(眞人火中宛)로다 차시심마물(此是甚廢物)인가 개중무불조(箇中無佛)로다"라는 임종계를 남기고 입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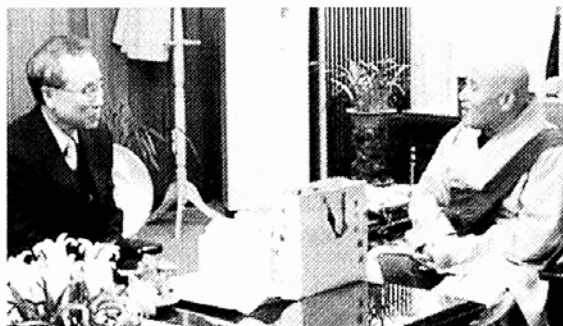
소림정사 평화통일 해오름 법회

서울 소림정사주지 지행은 1일 경주 감포 앞바다 백사장에서 민족 평화통일 기원 해오름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3천여명의 불자들이 관음·지장·정근 등을 하며 민족의 평화통일과 업장소멸 및 소원 성취 등을 발원했다. 지행 스님은 법문을 통해 '절아정진의 공덕과 인력으로 올 한해 각 가정에 공덕이 가득하길 기원한다'며 "이번 기도를 시작으로 3천일 결사입재에 들어가 10년간 일일상 1백만점을 인연 불자들에게 드리겠다"고 밝혔다.



수원포교당 금강보탑 점안

부처님되신날(성도재일)을 맞아 수원불자들의 염원을 담은 금강보탑이 세워졌다. 수원포교당주지 성관은 1일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처님되신날 기념법회 및 금강보탑 점안식'을 가졌다. 전통적인 한국의 미와 현대적 감각을 잘 조화시킨 금강보탑은 4m 높이의 3층석탑으로 불국사 다보탑과 화엄사 각황전을 모델로 동국대 문법대교수. 문화재청 감창준 전문위원의 자문을 얻어 단 이슬불사연구소소장 최용석(가) 1여년에 걸쳐 제작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과 김동완 목사가 환담하고 있다.

"통일·종교 화합 함께 노력"

조계종 정대스님 - KNCC 김동완 목사 환담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4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총무 김동완 목사의 예방을 받고 환담했다.

정대스님의 크리스마스 축하메시지 발표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한 김 목사는 "정대스님의 축하메시지 전문을 <교회와 세계>에 게재할 예정"이라며 "새해에도 종교간 벽을 허무는 데 함께

노력을 기울이자"고 말했다. 정대스님은 "지난 해 6.15는 북공동선언으로 남북간 화해분위기가 크게 조성됐다"고 평가하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종교인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대스님과 김 목사는 또 지난 해 추진됐던 남한 종교대표들의 북한방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성운 기자

"대자비로 보리심 밝히자"

세계불교법륜종 법광 중흥 신년사



새해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구도전법을 펴며 생명의 존엄을 최상의 가치로 삼고 민족 정신문화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환상과 열망과 지나친 욕망의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종교인의 사명과 위대한 서원을 재인식하고 투영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성인들의 가르침을 깊이 헤아려야 합니다. 헛된 망상과 한탕주의로 흥의호식하려는 무기력한 이들의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으며 거품이나 탐욕스러운 망상을 버려야 새롭게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생명의 존엄과 불법의 가르침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정법에 입각해 양심을 저버리지 않고 정의로운 불국정토가 되도록 각자가 지혜의 심지에 대비(大備)로서 기쁨을 삼고 대사(大捨)로써 불을 삼아 보리심(菩提心)이 법계를 비추도록 생활화해야 하겠습니다.

이경숙 기자(gilee@buddhachia.com)

김희옥검사 홍조 근정훈장
인권옹호·정의실현 공로
김희옥 수원지검 제1차장이 23년간 검사로서 인권옹호와 정의실현에 헌신한 공적이 인정되어 12월 28일 정부로부터 홍조 근정훈장을 받았다.
독실한 불자로 잘 알려진 김희옥 검사는 1972년 동국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시 18회에 합격했으며 부산지검 검사를 시



人事 말씀

大韓佛敎 曹溪宗 前 佛國寺 講主이시며 傳燈寺 會主 印空堂 象默大講伯께서 지난 12월 28일(음12.3) 午後 9時 30分에 傳燈寺 極樂庵에서 圓寂 하시어 佛紀 2544年 12월 30日 宗團의 元老 大德스님과 四部大衆을 모시고 門徒葬으로 永訣式과 茶毘式을 嚴肅히 奉行 하였습니다. 嚴冬의 추운 날씨에公私 多忙하심에도 不拘하시고 參席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일일이 찾아뵙고 人事 드림이 道理인줄 아오나 慌忙中 우선 紙面으로 인사드리오니 널리 解諒하여 주시기를 仰望하나이다.

四十九齋案內

Table with 6 columns: Day, Location, Date, Day, Location, Date. Details of the 49-day mourning period.

印空堂 象默大講伯 四十九齋를 위와 같이 奉行코자 합니다.

佛紀 2545年 1月

印空堂 象默大講伯 門徒葬 葬儀 委員會

葬儀委員葬 성타 集行委員葬 범등 護喪 宗진 門徒代表 세웅 門徒一同 상좌: 성대, 장운 합장

강화 전등사 종무소 032) 937-0125, 0025 전송 032) 937-5450

2001학년도 무불선학대학원 2기 신입생 모집

선의 대중화·생활화·세계화를 지향하는 무불선학대학원에서는 진정한 자아를 찾고 선의 원리를 실용화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불교의 선을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2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원서교부 및 접수

2001년 2월 1일 ~ 2월 24일

모집내용

- 주간반 00명, 야간반 00명,
통신반 00명(비디오TAPES수강)
인터넷 수강가능
(Homepage : http://www.moobool.com)

전형 및 구비서류

- 서류전형(전형료 2만원) 입학원서(본원소정양식) 1통
자기소개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자격

- 기존 불교교양대학 수료자 및 동등한 불교 교리 숙지자
선학에 대한 전문적 이해를 희망하는 자

합격자 발표

2001년 2월 26일 ~ 28일(개별통지)

개강 및 강의시간

3월 5일(총 15주) · 매주 월·화요일

등록금(학기당)

- 주·야간반 : 47만원, 통신반: 55만원(본납가능)
과목별 수강: 과목당 20만원(통신 23만원)

개설강좌

Table with 3 columns: Course Name, Instructor, Days and Time. Lists various Buddhist studies courses.

* 학과목 및 강사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입학식

- 2001년 3월 3일 토요일
오후 2시 본원 법당

원서교부 및 접수처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7-5 삼운빌딩 8층(135-010)
전화: 541-0002~3
팩스: 541-0004
Homepage : http://www.moobool.com
E-mail : moobool@netsgo.com

덕숭총림 수덕사 부설
무불선원·한국불교선학연구원
무불선학대학원